



팔레스타인인의
저항과 연대 운동
3, 4, 16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제국주의자들은
지구의 미래를 두고
도박을 벌이고 있다 5면

서방은 왜 이란을
두려워하고
싫어하나?
6~7면

여야 영수회담
윤석열의 위기 탈출용
시간 벌기에 응해 주는
이재명 11면

브릭스는
반제국주의
국가군(群) 아니다
12~13면



라파르 지상군 공격 이박

관련 기사 2~3면

항의 집회 안내

4월 27일(토)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교보문고 앞
주최: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사람들

이스라엘군의 라파흐 학살 임박

김인식

이스라엘군은 4월 20일(이하 현지 시각) 라파흐 공습을 재개했다. 팔레스타인인 10여 명이 죽었고 대부분이 어린이였다.

미국 국방장관 로이드 오스틴과 이스라엘 국방장관 요아브 갈란트가 “중동 안정 유지 문제를 논의”한 직후에 공습이 시작됐다.

4월 21일 이스라엘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는 “며칠 내로 하마스에 군사적 압박을 가하겠다”고 밝혔다.

박현도 서강대 유로메나연구소 교수는 이스라엘군이 유월절 기간에 공격할 수도 있다고 관측했다.

“오늘부터 30일까지 유월절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판단한다면 30일 전에는 공격하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그동안 이스라엘은 그러한 보통의 공격 문법을 생각하지 않고 했기 때문에 사실상 유월절 내에도 공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YTN, 4월 22일 자)

유월절은 출애굽을 기념하는 유대인의 명절이다. 그만큼 이스라엘인 인질들의 빈자리가 그 기간에 더 크게 느껴질 수 있다.

네타냐후는 라파흐를 침공해야 인질을 구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스라엘군의 공습과 지상전은 오히려 인질 사망 위험을 더 키우고 있다.

네타냐후의 진정한 목표는 인질 구출이 아니라 하마스 섬멸이다. 라파흐를 공격하지 않으면 하마스를 섬멸하지 못할까 봐 네타냐후는 초조해 한다.

지난해 10월 7일 하마스의 공격은 네타냐후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치욕이기 때문이다. 그날 하마스는 이스라엘 영토를 밟았다. 1973년 욥 키푸르 전쟁 때 이집트에 의해 영토 ‘침범’을 당한 지 50년 만의 일이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마스 섬멸이라는 군사적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다.

수많은 팔레스타인인들이 죽고 다치



초조함 가자지구 공격하는 이스라엘군 탱크

고 있지만 하마스 등 저항 세력을 변함없이 지지하고 있다. 4월 초순 이스라엘 군대는 팔레스타인 저항 세력들의 항전에 밀려 칸 유니스 등 가자지구 남부에서 퇴각했다.

팔레스타인인들의 불굴의 저항 때문에 네타냐후 정부는 정치 위기를 겪고 있다.

세계 도처에서 벌어지는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은 수많은 사람들을 정치적

이스라엘은 이란 보복 공격을 감행하지 못했다

이스라엘 정부는 4월 19일 이란을 제한적으로만 공격했다. 아마도 미국이 라파흐 학살을 지지해 주기로 했기 때문인 듯하다.

“미국 정부는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대규모 보복 공격을 실행하지 않는 조건으로, 이스라엘이 이전에 제시했던 라파흐 군사 작전 계획을 수용한다는 의사를 보였다.”(《타임스오브이스라엘》, 4월 18일 자)

미국은 중동에서 대규모 반란을 촉발하고,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시작하게 될까 봐 두려워했다. 그래서 미국은 이스라엘에 신중한 대응을 촉구했다.

사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인종 학살 작전을 수행하면서 동시에 이란과 전면전을 벌이는 것은 매우 힘든 과제다. 특히, 미국이 또 다른 중동 전쟁에 휘말리기를 거부해,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을 지지하지 않는다면 말이다.

이스라엘은 이란 핵시설이 밀집해 있는 이스파한을 공습했는데, 이란 정부는 “피해가 없었다”고 발표했다.

네타냐후는 이란을 도발해 미국 등

서방을 이스라엘에 더 밀착시키고, 가자지구의 인종 학살에 대한 세계인들의 분노를 다른 데로 돌리고 싶어 했다.

4월 14일 이스라엘로 향한 수많은 이란 발사체들은 이스라엘이 “거친 이웃”으로부터 끊임없이 적대를 당하는 희생자라는 이미지를 되살렸다.

미국 정치인들은 이란의 응징 공격 뒤 이스라엘을 한껏 방어하기로 결정했다. 4월 20일 미국 하원은 260억 달러(36조 원) 규모의 이스라엘 안보 지원안을 통과시켰다.

네타냐후의 라파흐 공격에 청신호를 준 것이다. 이튿날 네타냐후는 하마스에 “추가적이고 고통스러운 타격”을 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제한적인 이란 공격 때문에 네타냐후 동맹들 사이에서 분열이 일어났다. 국가안보장관 이타마르 벤그비르는 이스라엘의 이란 대응이 “dardaleh(다르달레)”였다고 X(옛 트위터)에 올렸다. “다르달레”는 힘이 없고 실망스럽거나 형편없다는 히브리어 속어다(《예루살렘 포스트》 4월 19일 자).

미국이 이스라엘에 라파흐 학살 자유재량권을 주다

미국 정부는 이스라엘이 이란을 다시 공격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라파흐를 공격할 자유재량권을 줬다.

4월 18일 미국은 이스라엘의 고위 관리들과 화상 회의를 열어 라파흐 지상 작전을 승인했다.

‘이란 공격을 허용할지 아니면 라파흐 침공을 수용할지’ 선택하라는 이스라엘의 요구에 미국은 라파흐 침공을 고른 것이다.

그러자 이스라엘은 당장은 이란과의 전면전으로 나아가지 않겠다고 했다.

이스라엘의 제한적인 이란 공격으로 서방은 지역 전쟁으로의 확대를 피했는지 모른다. 그러나 그 대가는 팔레스타인인들이 피로 치르게 될 것이다.

바이든 정부는 이런 더러운 거래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나 바이든 정부는 이란의 응징이 있기 전까지 거의 매일 거르지 않고 발표했던 라파흐 침공에 대한 경고를 더는 하지 않고 있다.

이런 선택은 바이든이 팔레스타인인들의 생명을 얼마나 무가치하게 여기는지를 새삼 보여 준다.

지역 전쟁을 촉발시킬 것이 거의 확

싨한 행동을 감당하느니보다 가자지구의 인종 학살 작전을 완수하게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 것은 얼마나 비정한 논리인가.

그러나 이란 공격과 라파흐 공격은 가점전대 양자택일 문제가 아니다.

바이든은 이스라엘에 “둘 다 안 돼” 하고 말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동안 바이든은 이스라엘을 꼭 껴안는 ‘곰의 포옹’ 전략을 취했다.

미국이 이스라엘의 하마스 공격을 확고하게 지지하기 때문이다. 바이든은 이스라엘더러 전쟁을 끝내라고 말한 적이 결코 없다.

다만 민간인 피해를 줄이면서 하마스를 공격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민간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하마스만 섬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때문에 바이든 정부는 실은 라파흐를 공격해도 좋다고 말해 온 것이나 다름없다.

이스라엘이 세운 라파흐 거주 민간인 대피 계획은 텐트 4만 개를 구입해 라파흐 인근에 설치하는 것이다.

라파흐에는 지금 약 150만 명이 거주

서안지구: 인종 분리 장벽의 일부를 무너뜨리다

지난 일요일(4월 14일) 서안지구에서 팔레스타인인들이 서안지구를 갈라놓는 장벽의 일부를 무너뜨렸다.

SNS에 공유된 영상(큐알코드)을 보면 사람들은 장벽의 금속 부분을 해체하는 데에 성공하면서 환호하고 있다.

이런 용감한 저항이 벌어지는 와중에 이스라엘군과 정착자들은 서안지구 등 점령지에서 억압 수위를 계속 높이고 있다.

지난 토요일 시온주의자들이 여러 차례 공격을 가해, 알무가이르 마을에 사는 팔레스타인인 남성 한 명이 이스라엘 정착자에게 살해됐다.

같은 시각 정착자 무리가 라말라 인근 마을 한 곳을 공격해 팔레스타

인인 25명을 다치게 했다.

이 밖에도 지난 주말 쿠스라·두마·알사위야 등 여러 마을이 정착자들의 공격을 받았다. 정착자들은 가는 곳마다 팔레스타인인들의 집과 차량에 불을 질렀다.

이 폭도는 이스라엘군의 보호를 받으며 움직였다.

팔레스타인인 저항 단체 하마스는 서안지구의 팔레스타인인들에게 시온주의 식민 정착자들에 맞서 싸우라고 호소했다.

하마스는 성명을 발표해 이렇게 촉구했다. “우리 인민과 영웅적 투사들이여, 혁명적인 저항 운동의 수위를 높이고 시온주의 적군과 범죄자 집단 정착 민병대와 격돌하라.”



영상 보기



이스라엘의 라파흐 공습으로 숨진 엄마 배 속에 서 제왕절개로 살아남은 가자지구 아기

으로 각성시키고 있다. 그로 인해 이스라엘 국가는 국제적 ‘왕따’가 됐다. 또,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은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서방과 아랍의 정부들을 만만찮게 압박하고 있다.

가자지구: 누세이라트 난민촌에서 이스라엘의 공격에 맞서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중부에 있는 누세이라트 난민촌과 그 일대를 최신 군사 공격 목표 중 하나로 지목했다.

이스라엘군은 난민촌 침탈이 하마스와 ‘팔레스타인 이슬람 지하드’(PIJ) 전사들을 제거하기 위한 “표적

임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팔레스타인인 저항 세력은 이스라엘군의 공격에 맞서 격렬한 전투를 벌였다. 지난 주말 레바논 언론 알마야딘은 팔레스타인 전사들이 시온주의자들과 여전히 전투를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

PIJ의 알쿠드스 여단은 매복 작전으로 이스라엘 병사 여러 명을 살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폭탄을 이용해 이스라엘군의 메르카바 전차 한 대와 이스라엘군의 D9불도저 두 대를 망가뜨렸다고도 전했다.

하고 있다.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텐트 4만 개를 설치하는 것으로 라파흐에 가해질 피해를 막을 수 있겠는가.

또, 이 계획에는 음식, 물, 기타 공공 서비스에 대한 접근 방안이 아예 없다.

그러나 이런 아무 쓸모없는 ‘대책’만으로도 이스라엘은 미국의 우려를 진정시킬 수 있었다!

이집트의 엘시시 정권도 이스라엘의 인종 학살에 공모하고 있다.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은 이집트도 이스라엘의 라파흐 군사 작전으로 발생할 수 있는 난민 유입을 막으려고 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 대비라는 것은 국경 지대인 시나이 반도 사막 지대에 가자지구 출신 피란민들을 수용할 수용소를 만드는 것이다. 사방이 콘크리트 벽으로 막혀 있고 이집트 내 어떤 마을과도 거리가 먼 수용소에 팔레스타인인 5만~6만 명을 가두겠다는 것이다.

미국 등 서방 정부들이 어지럽게 벌이고 있는 현혹·미혹 전술들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제국주의와 시온주의에 대한 경계를 굳건히 해야 한다.

이스라엘: 반정부 시위대도 가자지구 전쟁 종단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스라엘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는 지난주 이집트 카이로에서 있었던 중재 협상에서 하마스가 휴전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휴전이 결렬되고 네타냐후가 하마스에게서 이스라엘인 포로를 되찾지 못하면서 이스라엘 내 정치적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

이스라엘에서 매주 벌어지는 반정부 시위에 지난주에도 수만 명이 참가했다.

한 포로의 어머니는 네타냐후가 최근 협상을 일부러 깨 버렸다고 말했다.

지난주 그녀는 이렇게 연설했다. “당신(네타냐후)에게는 가자지구에 있는 인질들을 저버린 책임이 있다. 당신 때문에 인질들이 억류돼 살해당하

고 있다. 그렇다, 바로 당신 책임이다.”

그러나 네타냐후의 지지율이 하락한다고 해서 이스라엘의 전쟁에 대한 지지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전직 장성 베니 간츠(사진)가 이끄는 [반(反)네타냐후] 선거 연합이 의석의 69퍼센트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네타냐후가 간츠로 바뀐다고 달라지는 것은 거의 없다. 최근에 간츠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수행하는 전쟁이 몇 대에 걸쳐 치러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하마스와의 전투는 긴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지금 중학교에 다니는 소년들이 자라서 군인이 됐을 때에도 가자지

구 전투는 계속되고 있을 것이다.”

간츠는 또한 이렇게 말했다. “이스라엘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라파흐에 진입할 것이다. 우리는 칸유니스로 돌아갈 것이다. 우리는 가자지구에서 활약할 것이다. 추적해야 할 테러리스트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출처 Socialist Worker, ‘Starvation in Gaza proof that West didn't tame Israel's war – Let's tear down this apartheid wall’ (2024. 4. 16) / 번역 김중환

요르단

팔레스타인인들을 배신하고 이스라엘을 지키는 정권을 반대하는 시위가 계속되다

지난 주말 이란의 공격에서 이스라엘을 지켜 준 것은 미국·영국만이 아니었다. 아랍 정권들도 시온주의 편에 섰다.

요르단 공군은 이란 드론 수십 기를 요격했다. 요르단군은 높은 수준의 비상 경보를 발령하고 이스라엘을 지원해 레이더로 드론을 추적했다.

사우디아라비아도 드론 요격을 도왔다.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의 한 관리는 이란이 아랍 정권들과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 정상화가 “진전”되는 것을 훼방 놓기 위해 “가자 전쟁을 획책했다”며 쏘나갑게도 이스라엘을 감싸고 돌았다.

요르단 지배자들은 지난 주말 자신들의 행동이 이스라엘 지원이 아니라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해야 했다.

팔레스타인인들을 지지하고 요르단 정권을 겨냥하는 대중 시위가 고조될까 봐 두려웠기 때문이다.

요르단의 한 노동조합 활동가는 정부가 이스라엘 편에 선 데에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소셜리스트 워커>에 전했다.



이스라엘을 도운 정부에 분노한 시위대가 요르단 수도 암만 거리를 가득 메웠다

“거리에 나온 많은 요르단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군사적 공격도 그 테러 국가를 약화시키고 가자지구가 받는 압력을 완화할 거라고 여길 겁니다. 요르단에서는 가자지구 전쟁을 규탄하는 거리 시위가 계속될 것입니다.”

3월 24일 이후 매일 밤 평균 6000명에서 1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요르단 주재 이스라엘 대사관에서 최대한 가까운 곳에 모여 시위를 벌이고 있다.

경찰과 진압 병력은 시위대가 대사

관 반경 1마일 안쪽으로 진입하지 못하게 저지한다.

시위는 새벽까지 계속되고, 종종 보안 병력과 충돌하며 끝난다.

시위대는 요르단 정권이 1994년 이스라엘과 체결한 평화 협정과 뒤이은 관계 정상화를 폐기하라고 요구한다.

15일 연속으로 시위에 참가했다고 밝힌 한 참가자는 <코스앰펠레스 타임스>에 이렇게 전했다. “우리 동네에서 시위들이 벌어지고 있지만 [이스라엘

대사관 인근에서 열리는] 이 시위는 요르단 역사상 최대 시위입니다.

“당연히 여기 와서 시위를 해야죠.”

시위대 일부는 하마스의 구호를 외쳤다.

다른 구호를 외치는 사람들도 있었다. “관계 정상화는 … 반역이다!” “대사관 인정은 … 반역이다!” “경제 협정은 … 반역이다!”

요르단 인구 1100만 명 중 최소 200만 명이 팔레스타인인이라, 시위대 사이에서는 이런 구호도 자주 나왔다. “우리가 남이라고? 요르단의 피는 팔레스타인을 위한 것이다.”

아랍 정권들은 또다시 팔레스타인인들을 배신했다.

요르단 시위가 번져서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고 모든 아랍 군주·독재자에 맞설 혁명적 도전을 촉발할 수 있기를 바란다.

토머스 포스터

출처 Thomas Foster, 'Labour – money for bombs and guns, not the NHS — Protests as Arab regimes defend Israel and betray Palestinians' (2024. 4. 16) / 번역 김준호

하마스 등의 무장 저항은 지금도 중요한 저항의 한 축

뉴스를 보면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벌이는 학살만이 두드러진다. 팔레스타인인들의 저항 소식은 보이지 않는다.

이는 이스라엘의 무력 앞에 ‘팔레스타인인들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무력감 조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가자에서는 무장 저항이 지속되고 있다. 그 저항이 이스라엘의 전쟁 계획을 방해하고 중동을 비롯한 전 세계에 파장을 낳고 있다.

4월 12일 이스라엘 언론 하아레츠는 “이스라엘이 완전히 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전쟁 목표는 달성되지 않을 것이고, 군사적 압박으로는 인질을 돌려받지 못할 것이다.”

하마스 등 팔레스타인 저항 세력들의 무장 저항 때문에 이스라엘은 가자지구를 통제하는 데 애를 먹고 있다. 최근 가자 중부 누세이라트 난민촌에서도 저항 세력들이 이스라엘군을 타격했다.

주민들의 지지와 지원이 없다면, 이미 기아가 시작되고 있는 가자지구에서 하마스가 반년 넘게 유격전을 벌이지 못했을 것이다. 따라서 하마스를 현지 주민들과 분리된 집단으로 여기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서안

가자지구의 무장 저항은 서안에서도 새로운 투쟁을 고무시키고 있다. 지난해 12월 팔레스타인 정책조사연구센터(PSR)의 여론조사에서는 서안 지구 주민 80퍼센트 이상이 10월 7일 공격이 옳았다고 응답했다.

4월 14일 서안 주민들은 분리 장벽의 일부를 무너뜨렸다. 하마스는 서안 주민들에게도 이스라엘군과 정착자들에 맞서 싸우자고 호소하고 있다.

하마스 등의 무장 저항이 팔레스타인인들의 저항 의지를 북돋았고, 그

것이 다시 무장 저항이 지속되는 원동력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스라엘은 앞으로 훨씬 더 광기 어린 만행을 벌일 공산이 크다. 군사력 격차가 워낙 커서 팔레스타인인들의 저항만으로 이스라엘 군대를 완전히 패퇴시키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팔레스타인인들의 저항은 글로벌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이 굳건히 유지되도록 초점을 제공하고, 중동에서 거대한 반란이 촉발될 가능성을 열고 있다.

요르단에서는 지난달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가자지구의 저항을 지지해 매일 이스라엘 대사관 인근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런 시위가 더 발전하고 이집트 등 다른 아랍 나라들로 번지면, 시온주의 자들과 그들을 돕는 아랍 정권들, 제국주의자들은 공포에 떨게 될 것이다.

김영익

유럽 정부들은 이스라엘을 진정 만류하고 있는가?

4월 5일 독일 외무장관 아날레나 베어보크는 이스라엘에 가자지구로 향하는 구호물품 통로를 추가 개방하라고 촉구했다. 유럽연합 외교안보대표 호세프 보렐도 가자지구의 기아 해결과 휴전을 촉구했다.

유럽 정치 지도자들의 이스라엘 비판이 늘면서,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의 일부는 이들이 이스라엘 비판 여론을 의식해 기존의 친이스라엘 태도를 바꾸고 있다고 본다.

분명 유럽 정부들은 아래로부터 강한 압력을 받고 있어서, 이스라엘의 학살을 자제시키는 모양새를 보이려 한다.

그러나 이 제국주의자들의 진정한 목적이 달라진 것은 아니다. 이들은 서

▶ 5면으로 이어짐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제국주의자들은 지구의 미래를 놓고 도박을 벌이고 있다

4월 20일 미국 하원에서 600억 달러 규모의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법안이 마침내 통과되자 민주당 하원의원들은 우크라이나 깃발을 흔들며 환호했다.

그러나 오랫동안 계류돼 있던 이 법안이 통과된 데에는 우크라이나 지원보다 훨씬 큰 목적이 있었다. 같은 날 다른 세 법안이 함께 통과돼 이스라엘에 260억 달러 규모와, 대만을 비롯한 미국의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들에 80억 달러 규모의 군사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어처구니없게도, SNS 플랫폼 '틱톡'의 중국 소유주가 지분을 처분하지 않으면 틱톡을 금지하겠다는 내용도 있다.

〈파이낸셜 타임스〉 칼럼니스트 기디언 래크먼은 이 표결에 대한 서방 자유주의자들의 견해를 명료하게 설명했다. “이 법안들을 모아서 보면 미국—과 미국의 유럽·아시아 핵심 동맹국들—이 현재 세계를 어떻게 보는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총체적으로 이 모든 지원금에는, 유럽 주둔 미군 사령관 크리스토퍼 카볼리 장군이 ‘대적(對敵)의 축’이라고 지칭한 네 나라 러시아·중국·이란·북한을 밀어낸다는 의도가 있다.”

여기에는 나토뿐 아니라 일본·한국·오스트레일리아도 연루돼 있다. 래크먼은 이렇게 설명한다. “현실에서 오늘날 ‘서방 동맹’은 서로 연결된 일련의 지역 쟁투들에 관여하는 세계적 동맹 네트워크다. 러시아는 유럽에서의 핵심 대적자다. 이란은 중동에서 질서를 가장 많이 위협하는 강국이다. 북한은 아시아에 상존하는 위협이다. 중국은 점점 공격적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있으며, 러시아나 이란이 동원할 수 없는 자원을 동원할 수 있다.”



동시다발적 도전들에 대적해 위험 키우는 미국 군사 지원 법안 통과 후 환호하는 미국 의원들

그러면 이 “대적의 축”은 정확히 어떤 질서를 위협하는가? 바로 미국이 제2차세계대전 종전 후 구축한 이른바 “규칙 기반 국제 질서”다. 미국은 자유주의 자본주의 국가들을 자기 지도하에 한 블록으로 통합시켰으며, 1989~1991년 소련이 붕괴한 후에는 이 블록을 세계화하려고 애써 왔다.

미국이 지배하는 이 질서에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과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이 반대한다는 것은 분명 참말이다. 시진핑과 푸틴은 자신들의 대안을 “다극화”라고 규정하는데, 다극화는 중심이나 헤게모니를 쥔 강대국이 없는 국제 질서를 뜻하는 말이다.

다극화의 이점이 무엇인지 논해 보자. 수감된 러시아 마르크스주의자 보리스 카갈리츠키는 “다극화”가 “만인의 만인에 대한 전쟁”이라고 규정하는 논평을 쓴 바 있다. 현실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의 지배력에 대한 반발을 부추기는 경쟁적 제국주의 블록을 주도하는 국가들이 되고 있다.

“규칙 기반 질서”가 곤란을 겪고 있다는 것도 참말이다. 부분적으로 이는 현재 미국이 중국이라는 진짜로 강력한 도전자를 상대하고 있다는 점 때문이

다. 그러나 “규칙 기반 질서”를 정당화하는 주장이 허물어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사람들을 학살하고 국제사법재판소의 결정에 불복하는 동안에도 자유주의적인 서방 제국주의 강대국들이 이스라엘에 제공하는 지지는 자신들이 “독재적인” 경쟁국들보다 도덕적으로 우월하다는 주장이 얼마나 공허한지를 밝히 보여 준다. 그 결과 개발도상국·빈국에서뿐 아니라 서방의 자국민들 사이에서도 서방 강대국들에 대한 역겨움이 팽배하다.

“전쟁 자유주의”

이번 미국 하원 표결의 진정한 중요성은 이 표결에서 자유주의적 제국주의자들의 대응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들은 만만찮은 타협을 찾기보다는 어려움을 불사하고 싸우기를 택했다. 이를 두고 “전쟁 자유주의”라고 부를 수도 있겠다. 여기에는 예컨대 미일 안보 협정을 강화하고 이란의 미사일·드론 공격에서 이스라엘을 방어하는 데에 미국·영국·프랑스가 협력하는 것 같은 군사적 조치가 있지만 그런 것만 있지는 않다. 미국과 유럽연합은 중국의 수



알렉스 캘리니코스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 유럽학 명예교수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 중앙위원장

출과 투자에 맞서 보호무역주의 조처들을 점점 더 많이 취하고 있다.

래크먼은 바이든이 전쟁을 적극 도모하고 있지는 않다고 옳게 지적했다. “미국 정부는 미국이 대적의 축 국가들 중 어느 누구와의 전쟁에도 직접 휘말리지 않으면서도, 역지력을 키울 방법을 두고 부심하고 있기도 하다. 실제 구현에서 이는 대개 미국이 전선에 있는 동맹국에 군사 지원을 추가 제공하는 동시에 그들의 대응을 억제하려고 애쓰는 것을 뜻했다.” 이스라엘이 전면전을 촉발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란의 미사일·드론 공격에 대응하지 못하도록 말리는 데에 미국이 외교상 성공한 것이 그 한 사례일 것이다.

그러나 군사적 대응 증대는 위험 부담이 엄청나게 크고 특히 우크라이나에서 그렇다. 지루한 소모전 형태로 벌어지고 있는 이 전쟁은 더 유동적이고 심지어 더 치명적인 전쟁으로 쉽사리 변모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의 패망 가능성이 보이면 양측 모두 모험적 대응의 유혹을 크게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과 그 동맹국들은 지구의 미래를 놓고 도박을 벌이고 있다.

번역 김준호

▶ 4면에서 이어짐

방 제국주의의 중동 지배력을 지키려고 이스라엘을 계속 지원하고 있다.

유럽 강대국들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오랫동안 끈끈했다. 가령, 프랑스의 지원 덕분에 이스라엘은 수월하게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었다.

지금도 독일 등 유럽 강대국들은 이스라엘에 계속 무기를 보내고 있다. 그래서 니카라과 정부는 이스라엘에 대

한 무기 수출 중단을 명령해 달라며 독일을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했다.

4월 12일 베를린에서 경찰이 팔레스타인 연대 컨퍼런스를 강제 해산하는 등 독일 정부는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을 강하게 공격하고 있다. 프랑스 마크롱 정부도 시온주의 비판을 ‘유대인 혐오’로 매도하고 공격해 왔다.

물론 프랑스와 스페인 정부 등은 ‘팔

레스타인 당국(PA)’을 유엔 정회원으로 인정하는 제안을 지지했다(윤석열 정부도 유엔 안보리에서 이를 지지했다).

그러나 이는 ‘두 국가 방안’의 신기루를 유지하기 위한 책략이다.

이스라엘의 충실한 협력자인 ‘팔레스타인 당국’이 유엔 정회원이 되도, 그 허울을 위해 팔레스타인인들은 난민 귀환권 등 중요한 권리와 저항을 포기

하라는 압력을 받게 될 것이다. 또한 하마스 등 저항 세력들이 고립될 수 있다.

서방과 친서방 정부들은 이스라엘에 분노하는 대중의 시선을 돌리려고 온갖 수를 동원한다.

글로벌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은 이에 현혹되지 말고 이들이 이스라엘에 어떤 지원도 제공하지 못하게 확고하게 나아가야 한다.

김영익

서방은 왜 이란을 두려워하고 몹시 싫어하나?

이란 정권의 본질은 무엇인가?

현재의 이란 국가는 1979년 혁명 이후에 등장했다. 이 혁명은 증오의 대상이었던 샤(이란어로 '왕'이라는 뜻을 날려 버리며 서방의 지원을 받았던 그의 정권을 무너뜨렸다.

이란은 자본주의 국가로, 시아파 이슬람을 따르는 보수적인 이슬람 성직자들이 지배계급 내 가장 강력한 세력이다. 이란은 아류 제국주의 국가이지만 중동 지역의 주요 세력이 되려고 애쓰고 있다.

이란을 지배하는 성직자들은 자신들만의 종교적 법을 갖고 있으며, 국가는 이를 엄격히 집행한다. 이란 국가는 여성의 권리와 성소수자에 대한 반동적인 사상과 정책을 구현하고 있다.

이란 국가는 경제의 많은 부분을 통제하며, 대공업 · 미디어 · 통신 · 운송 등 여러 부문을 지배한다. 그리고 국가 총수입의 약 40퍼센트를 차지하는 석유 산업을 소유하고 있다.

이란 지배계급은 다른 모든 자본가 계급과 동일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 즉, 자신들의 기존 특권을 유지하면서 경제 · 정치적 권력을 확대하는 것이다.

이는 이란 지배계급이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튀르키예를 비롯한 이 지역의 다른 국가들과의 제국주의적 경쟁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뜻한다.

그리고 이러한 경쟁은 이란의 행동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 이란은 자신들의 시아파 이데올로기에 동조하는 저항 단체들을 지원한다. 예멘의 후티도 그런 단체의 하나인데, 어느 정도는 이란이 수니파 사우디아라비아와 적대 관계이기 때문이다. 이란은 레바논의 헤즈볼라도 지원하는데, 어느 정도는 헤즈볼라가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란은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을 지원하는데, 아사드 정권은 사우디가 지원하는 아이시스 그룹 그리고 2011년 시리아 혁명의 잔존 세력에 맞서 싸우고 있다.

이란은 러시아와 중국 둘 다와 친구가 됨으로써 중동 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에 대항하려 해 왔다. 중국은 이란의 최대 무역 상대국이며 이란 석유의 약 90퍼센트를 구매한다.



1979년 혁명에는 노동자들이 주로 참여했지만, 좌파의 착각과 이슬람 성직자들에 의해 왜곡됐다

이란은 독재국가인가?

이란은 성직자들이 민주주의적 제약을 거의 받지 않고 통치하는 권위주의 정권이다.

그러나 이란은 서방 언론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것처럼 획일적 국가는 아니다. 이란 국가기구 내에는 경쟁하는 정치 파벌들이 존재한다.

때로는 이러한 파벌들이 지배계급 내부의 분열을 반영하며 여러 정치적 위기를 초래해, 다른 형태의 사회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기회가 생기기도 한다.

더 많은 자유와 민주적 권리를 요구하는 운동들이 자주 등장하고, 때로는 운동이 노동조합, 여성운동, 민족적 · 종교적 권리를 요구하는 단체들과 섞여 들기도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가는 이러한 모든 운동을 탄압할 수 있었다.

성직자들의 권력은 이란의 최고지도자와 헌법수호위원회(종교 전문가와 변호사로 구성된 12인 기구)를 통해 보장



보수파 이란 대통령 에브라힘 라이시

돼 있다.

이란의 최고지도자인 알리 하메네이는 종교적 권위에 기초해 정치 권력을 갖고 있다. 그는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며, 이란 군대를 지휘하고 전쟁을 선

포할 수 있다.

최고지도자로서 그는 모든 군대 및 경찰 수장, 법원장, 국영 매체의 책임자를 임명하고 해임한다.

최고지도자는 이란군 중 이란 방어 임무를 맡고 있는 이슬람혁명수비대에 대해서도 통제권을 갖고 있다.

헌법수호위원회는 지방선거, 총선,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자를 승인하고 또 자격을 박탈할 수 있으며, 의회에서 통과된 어떤 법안이든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헌법수호위원회 구성원의 절반은 최고지도자가 임명하며, 최고지도자는 헌법수호위원회의 구성원 누구든 해임할 수 있다.

헌법수호위원회는 존속해 온 내내 선거에서 개혁파 후보자들의 자격을 박탈하고 개혁적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보수파들을 도왔다.

이러한 기구들 아래에 대통령과 의

회가 있는데, 대통령은 선출직으로 정부 수반이며 장관을 임명하고, 의회는 290명의 선출직 의원으로 구성된다.

의회에서는 법안에 대한 토론과 표결이 실제로 이뤄진다. 그리고 개혁파, 온건파, 보수파로 나뉘어 경쟁하는 파벌이 있으며, 각 파벌 내에도 여러 그룹이 있다.

개혁파는 사회적 제약을 완화할 것을 요구하며 정치 개혁을 원한다. 그들은 더 온건한 버전의 이슬람을 받아들이고 서방 제국주의와 더 긴밀한 관계를 맺자고 제안한다.

보수파는 더욱더 엄격한 버전의 이슬람을 원하며 이란 국가가 서방에 계속 적대적이기를 바란다.

그러나 1979년 이래로 보수파가 권력을 키워 나가고 있는 추세다. 개혁파가 서방에 대해 우호적 태도를 보이는 것과 전쟁 발발 가능성이 생긴 것 때문에 개혁파는 심각하게 약화됐다.

최근 이란의 시위 운동은 무엇인가?

이란 정부는 최근 몇 년간 여러 차례의 대중적 반란에 직면했는데, 가장 최근에는 2022~2023년 ‘여성, 생명, 자유’ 운동과 2019년 및 2017~2018년의 시위 물결이 있었다.

최근의 여성운동은 종교 경찰이, 히잡을 부적절하게 착용했다며 마흐사 아미니라는 젊은 여성을 살해하자 이에 항의하는 시위로 시작됐다.

2022년 9월부터 2023년 봄까지 200만 명이 대규모 시위들에 참여했고, 젊은이들은 국가의 탄압 위협에 굴하지 않고 거리와 캠퍼스로 나왔다.

이 시위들은 근본적 변화, 즉 현재 이란 국가의 전복을 요구하는 운동으로 발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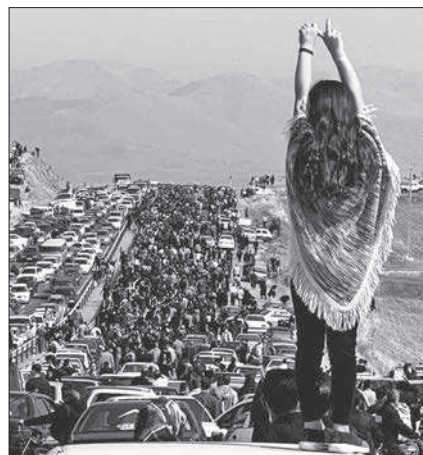
2019년에는 정부가 연료 보조금을 폐지하려고 시도하면서 또 다른 시위 물결이 일어났다. 물가가 급등하면서 수십 개 도시에서 시위, 연좌 농성, 파업 등의 반란이 벌어졌다.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월에는 물가 급등에 항의하는 전국적 시위가 솟구쳤다.

이러한 시위는 노동자들의 경제적 요구가 주된 동력이었지만, 최고지도자에 대한 정치적 반대로 흘러갔다.

그러나 이 모든 시위는 성공을 거두지 못했고 국가는 이들을 진압할 수 있었다. 이 시위들이 (몇몇에는 노동자 집단들이 일부 참가했지만) 다수를 획득하지 못한 것이 그런 까닭의 하나였다.

게다가 시위대는 서방 국가들이 자신들의 목적에 맞춰 시위를 조종하려고 “지시”를 보내는 문제와도 씨름해야 했다.



히잡 강제 착용과 정부에 항의하는 이란 시위

이스라엘은 왜 이란을 싫어하는가?

이스라엘은 중동 지역 전역에 걸쳐 군사·정치·경제적 권력을 놓고 이란과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이란을 무너뜨리려 필사적이다.

이스라엘은 서방이 이란과의 관계 “정상화”를 중단하고, 이란의 핵무기 보유 야심을 제한하려고 협상에 나서는 것도 중단하길 원한다. 대신 이스라엘은 서방이 이란을 폐허로 만들 전쟁에 동참하기를 바란다.

반대로 이란은 이스라엘을 비롯한 불량배들에 맞설 수 있는 세력으로 자신을 내세운다.

이란은 자신이 팔레스타인 해방을 지지한다는 것을 명예로운 훈장처럼 여기며, 팔레스타인 해방 문제를 시온주의에 맞선 이슬람의 싸움인 것처럼 규정한다.

1979년 혁명 이후 이란은 이스라엘과의 모든 관계를 단절했다. 이란은 이스라엘이 점령된 팔레스타인에 있는 불법 국가라고 말했다. 이란은 이스라엘

시민들의 이란 입국을 금지하고, 모든 이란인의 이스라엘 여행을 막았다.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 있는 이스라엘 대사관은 팔레스타인인들을 위한 대사관으로 변모했다.

이스라엘이 느끼는 두려움의 중심에는 이란이 이스라엘 자신의 핵무기와 경쟁할 수 있는 핵무기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는 사실이 있다.

현재 이스라엘은 중동 지역에서 유일하게 핵무기를 보유한 지역 강국으로, 이 덕분에 이스라엘은 엄청난 군사적 우위를 누리고 있다.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의 경쟁 때문에 그들은 오랫동안 “그림자 전쟁” 형태로 서로의 이익을 공격하는 데에 골몰했다.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발전 및 군사시설에 대해 파괴 공작과 사이버 공격을 감행해 왔으며, 이란은 이스라엘 유조선에 대해 드론 공격을 감행하며 역시 사이버 공격을 전개해 왔다.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야 할까?

이란은 시리아 내 자국 대사관 폭격과 그 이후 자국 영토 폭격을 비롯한 이스라엘의 공격에 대해 보복할 마땅한 권리를 갖고 있다.

심지어 영국 외무장관 데이비드 캐머런도 만약 영국 대사관이 미사일 공격을 받았다면 영국도 “매우 강력한 조치를 취했을 것”이라고 인정했다.

그러나 지금처럼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에 공격과 반격이 오가다 보면 넓은 지역을 집어삼키는 대규모 전쟁이 될 위험이 있다.

그리고 그 전쟁은 수억 명의 사람에게 재앙이 될 것이다. 그러한 전쟁은 팔

레스타인 해방으로 가는 길이 아니다.

팔레스타인의 해방을 진정으로 쟁취하기 위해서는 제국주의의 논리와 단절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중동 전역에서 평범한 사람들이 아래로부터 시온주의와 독재 정권에 맞서 반기를 들어야 한다.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집단적 힘은 노동자와 가난한 사람들에게 있다. 노동자들이 대규모 반란을 일으킨다면 이스라엘은 제국주의의 경비전으로서 더 이상 역할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는 이 지역 전체의 지배계급들에 대한 도전이 될 것이다.

이란의 현 정권은 어떻게 등장했는가?

1979년 이란 국민은 미국의 지원을 받는 잔혹한 군주정을 전복시켰고, 중동 지역에서 미국 제국주의에 엄청난 타격을 입혔다.

이란 혁명에는 노동조합, 민족주의자, 좌파 등 많은 세력이 참여했지만, 결국 이슬람 성직자들을 이끈 루홀라 호메이니에 의해 왜곡됐다.

그는 이슬람 운동의 더 온건한 부류 그리고 노동자 권력에 반대했고, 반대파들을 투옥하고 고문했다

혁명 이전에 이란은 샤가 통치했는데, 샤는 1953년 미국과 영국이 지원한 쿠데타 세력이 1954년 권력에 앉힌 왕이다. 이 쿠데타로 석유 산업을 국유화하려 했던, 대중의 지지를 받던 정부가 전복됐다.

샤는 일부 전통적 종교 기관과 수백만 명의 빈민층을 소외시키는 자본주의 발전 프로그램을 밀어붙였다. 엄청난 불평등과 소수민족에 대한 억압이 있었다.

1977년 여름부터 샤에 반대하는 상당한 규모의 시위와 파업이 벌어졌으며, 그 규모와 빈도가 점점 더 늘어났다.

1978년 10월 노동자들은 전국적 총파업에 돌입했다. ‘쇼라’라고 불렀던 파업위원회가 설립돼 활동을 조직하고 조율했는데, 이는 운동이 혁명적으로 변했다는 신호였다.

12월에는 당시 3700만 명의 인구 중 600만 명이 넘는 대규모 시위대가 시위를 벌여 샤의 타도를 요구했다. 노동자들은 전국에 쇼라를 세우며 도시와 마을을 장악했다.

1979년 1월 16일, 샤는 망명길에 올랐다. 가장 저명한 종교 지도자였으며 샤를 거침없이 비판했던 루홀라 호메이니가 혁명 기간 내내 자신의 지지 기반을 엄청나게 키워 왔다. 2월 1일, 그는 자신을 국가 원수로 선언했다.

그러나 샤의 독재를 대신할 사회가 어떤 사회일지 결정하기 위한 격렬한 투쟁이 있었기 때문에, 종교 성직자들이 혁명을 완전히 통제하지는 못했다.

자본가 계급의 많은 이들은 좌파에 함께 맞서기 위해 성직자 기관들과 힘을 합쳤다. 호메이니는 쇼라가 성직자 권력에 위협이 된다고 보고 국가 통제력을 재확립하기 위해 움직였다.

성직자들은 탄압을 이용해 자신들의 권력을 공고히 했고, 좌파를 공격하고 베일 착용을 거부하는 여성들에게 “도덕성”을 강요하기 위해 폭력단을 조직했다. 호메이니는 이란의 최고지도자로 옹립됐고, 그 결과 우리가 오늘날 보고 있는 자본주의 신정 국가가 탄생했다.

토머스 포스터

출처 Thomas Foster, ‘Why does the West fear and loath Iran?’ (2024. 4. 19) / 번역 김동욱

1974년 포르투갈 혁명 50주년



진정한 권력을 잡으려고 싸웠던 노동자와 병사들

50년 전 4월 수백만 명이 참가한 혁명으로 잔혹한 독재자가 타도되고, 근본적인 사회주의적 변화의 가능성이 열렸다. 다라 커미스키가 포르투갈 혁명에 대해 살피고, 역사가 하켈 바렐라와 대담을 나눈다.

혁명이 포르투갈을 휩쓴 지 50년이 지났다. 혁명으로 당시 전체 인구의 3분의 1에 달하는 300만 명이 정치적 활동에 참여하게 됐다. 그들 대부분에게 이런 활동은 생전 처음 겪은 경험이었다.

노동자들은 자신들이 일하는 공장을 장악했다. 사람들은 대저택을 탁아소와 문화센터로 탈바꿈시켰다.

포르투갈 혁명은 유럽에서도 혁명이 가능함을 보여 줬고, 1932년 안토니우 드 올리베이라 살라자르가 시작하고 1968년 이후 마르셀루 카에타누가 이어가던 파시스트 정권을 타도했다.

‘이스타두 노부(새로운 국가)’라 알려진 이 정권은 값싸고 잘 통제된 노동력을 이용할 생각이 간절한 외국 투자자들에게 포르투갈을 개방했다.

그러나 포르투갈의 경제는 여전히 낙후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했고, 1인당 경제생산량도 다른 유럽 국가들과 비교해 낮았다.

포르투갈 국민들 사이에서는 집권자들에게 대한 불만이 꾸준히 커져 왔고 그 불만이 심지어 군대 안으로까지 스며들었다.

포르투갈 군인들은 대부분 징집됐고, 지배자들은 청년들을 쇠락해가는 제국의 일부로 여전히 남아 있던 식민지로 보내 죽게 했다.

1961년 중앙 아프리카에 있는 앙골라의 반란으로 포르투갈은 일시적으로 식민지 전초기지였던 앙골라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했다. 그러나 포르투갈의 지배자들은 군대를 철수시키는 대신 완전한 지배력을 되찾기 위한 가망 없는 노력을 기울였다.

여러 식민지 저항 세력들이 남부 아프리카의 모잠비크에서도 반격에 나섰고, 1964년에는 서부 아프리카의 기니 비사우에서도 저항이 일어났다. 사지로 보내졌다는 것을 깨달은 장교들은 불만에 차서 파시스트 정권에 맞서 저항할 계획을 시작했다.

장교 400명으로 구성된 군인운동(MFA)이 1974년 4월 25일 카에타누 총리를 타도했다.

군인운동은 장군 100명을 제거했고, 쿠데타에서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았음

에도 안토니우 데 스피놀라 장군이 대통령이 됐다.

상층부의 이런 분열과 혼란은 진정한 사회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훨씬 더 엄청난 저항의 길을 열었다. 노동자들은 군인들의 행동을 지지했지만 곧 더 나아갔다.

판자촌

노동자들은 공장을 점거하고 거대한 시위에 참가했다. 수도 리스본의 한 판자촌에 살던 약 260 가구가 도시 근처의 비어 있던 아파트 단지로 이사했다. 군대는 퇴거를 명령했지만 가족들이 거부하자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카네이션 혁명”은 1968년의 세계적인 혁명의 물결이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노동자의 힘에 기초한 계급 투쟁이 낡은 방식이 아니란 점을 분명하게 보여줬다.

포르투갈에서 벌어진 일들은 노동자들이 경제를 변화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반란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스스로를 변화시키고, 억압에 맞설 수 있다는 희망을 되살렸다.

1974년 5월 전체 인구가 900만 명인 이 나라에서 조선, 방직, 전자, 호텔, 요식, 은행 등 주요산업 부문의 20만 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파업에 들어갔다.

파시즘에서 벗어난 “자유”를 찬양하던 지배계급은,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

상층부의 분열과 혼란은 진정한 사회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훨씬 더 엄청난 저항의 길을 열었다. 노동자들은 군인들의 행동을 지지했지만 곧 더 나아갔다.

다고 경고하는 것으로 말을 바꿨다. 여기서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는 말은 자본주의를 지켜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1974년 9월 스피놀라는 “침묵하는 다수”에게 좌파에 맞선 시위에 참여할 것을 호소했다.

이 시위는 9월 28일에 예정됐지만, 노동자들이 맞불 시위를 조직했고 결국 반좌파 시위는 무산됐다.

대신 최소 4만 명이 리스본 중심에 모여 시위를 벌였고, 병사들은 시위대의 바리케이트를 치우라는 명령을 무시하고 오히려 시위에 합류했다.

혁명을 통해 거의 모든 곳에서 노동자와 주민 평의회가 설립됐다. 지배계급은 수개월 동안 반란을 억제할 수 없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주요 좌파 세력인 사회민주주의자들과, 지하 활동에서 막 빠져나온 공산당원들은 혁명을 더 심화시키려는 시도를 저지했다.

무장해제

혁명적 사회주의자 크리스 하먼은 좌파가 무장해제 당한 이유를 설명했다. “왜냐하면 노동자들은 국군이 자신들을 대신해 행동해 주길 기대했고, 국군 내 사병들은 진보적인 장교들이 이끌어 주길 기대했기 때문이다”.

카에타누 정권으로의 회귀는 없었다. 식민지는 독립을 쟁취했고 지배계급은 [종전의 파시즘이 아니라] 의회민주주의에 희망을 걸며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자국이 유럽 안으로 더 통합될 수 있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포르투갈의 자본가들이 통제력을 되찾은 지도 한참이 지났지만, 1974~1975년의 기억은 계속해서 그들을 괴롭히고 노동자들에게 영감을 불어 넣고 있다.



1974년 4월 25일 혁명 당시 리스본 거리로 뒤흔쳐온 민중들

포르투갈의 역사학자 하켈 바렐라가 말한다: “혁명을 아래로부터의 관점에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의 책 《민중의 포르투갈사》는 포르투갈 혁명 당시 대중 참여에 대해서 무엇을 설명하고 있습니까?

제가 추산한 바에 따르면 300만 명이 시위, 파업, 작업장 점거에 동참했습니다.

당시 작업장 약 600 곳이 자체적으로 운영되거나 노동자 협동조합으로 운영됐습니다.

대공장에서는 노동자 평의회가 소유권을 갖기를 원하지는 않았지만 공장의 운영 방식은 통제했습니다.

또한 토지 개혁이 이루어졌고, 병원·학교 등 공공부문 전반에서 협동조합과 노동자 경영이 등장했습니다.

학교에서는 교사들이 직접 대표를 선출하고 새로운 커리큘럼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16세 이하의 모든 어린이가 학교 등급제 없는 교육을 통해 질적 차이가 없는 수업을 받아야 한다는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노동자들은 혁명 과정에서 어떻게 미디어를 장악했습니까?

포르투갈에는 서방의 역사에서 가장 강력했던 아나코-생디칼리즘 운동 중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은 가장 전투적인 투사였지만, 종종 그들의 정치로 인해 고립되기도 했습니다.

19세기에서 20세기로 넘어가던 무렵에는 300개가 넘는 노동자 신문들이 발행됐습니다. 그중에는 〈전투〉라는 신문도 있었는데, 매일 2만 5000부를 발행했습니다.

혁명기에 노동자 평의회가 세워지면서, 신문들은 놀라울 정도로 민주적으로 운영됐습니다. 저는 이 점을 연구해

공저하고 있는 책 《민중의 포르투갈사》(아직 영어[와 한국어]로 번역되지 않았다)에 담았습니다.

포르투갈 혁명 과정에서는 헌신적인 저널리즘이 탄생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1974년과 1975년 사이 여러 언론인들과 신문사들이 참여한 파업들이 크게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러한 저널리즘은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오늘날에는 노동자 신문이 없기 때문에 노동자의 목소리와 그들의 토론이 사회에 전달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큰 위기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혁명과 식민지 해방을 위한 반란은 어떤 관계가 있었습니까?

두 투쟁은 전적으로 연결돼 있었습니다. 식민 지배에 맞서는 혁명은 강제 동원 노동자들이 시작했습니다.

그 반란들은 포르투갈 국가가 1961년 ‘포르투갈 식민지 전쟁’이라 부른 사건을 촉발시켰습니다.

포르투갈 국가는 그 투쟁들을 식민지 전쟁이라 부르지만, 우리에게 그 투쟁들은 식민 지배에 맞서는 혁명들이었습니다.

앙골라에서 면직공 파업이 벌어졌고, 포르투갈 군대는 이에 대한 보복을 감행했습니다.

포르투갈 군대는 네이팜탄을 사용해 앙골라인들을 살해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앙골라인민해방운동은 무장 투쟁을 시작했습니다. 같은 일이 기니비사우와 모잠비크에서도 벌어졌습니다.

포르투갈 부두 노동자들은 근본에서 이러한 해방 운동을 지지했습니다.

민족 해방 운동과 군대가 교착 상태에 빠졌을 때 군대의 장교들이 진보적 쿠데타를 조직했습니다.

그들은 기울고 있던 제국을 지키기 위해 수천 명의 포르투갈 군인을 죽음으로 내모는 식민지에서의 전투를 정치적으로 끝내고자 했습니다.

어떻게 군사 쿠데타가 노동자들의 대규모 참여로 이어지게 됐습니까?

군 중간급 장교들은 쿠데타를 조직하면서 사람들에게 집에 머무르고 지시를 기다리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밖을 돌아다니면 체포할 수 있다는 얘기를 10번이나 반복했습니다. 이러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일하러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노조도 없고 정당도 없었기 때문에 국가와 노동자들 사이에 어떤 중재 수단도 없었습니다. 노동자들은 매우 자발적으로 수많은 노동자 평의회와 지역 평의회를 통해 스스로를 조직했습니다.

이 평의회들은 조직된 즉시 지방자치단체와 파시스트 노조에서 각 지도부들을 대체했고 정권에 밀착해 있던 기업들을 폐쇄했습니다.

이 평의회들은 사회를 스스로 조직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책에서 저는 군사 쿠데타와 노동자들의 자기 조직화를 별개의 두 순간으로 볼 것이 아니라 1961년에 시작되어 1975년까지 계속된 하나의 혁명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단일한 혁명의 과정인 것입니다.

이러한 혁명의 역사를 평가하려면 주류의 이해보다 훨씬 더 멀리 바라봐야 합니다. 민중의 역사가 중요한 이유는

그 역사가 아래로부터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마르크스주의적 역사 접근법은 노동계급의 활동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런 접근법에서는 결과만이 아니라 과정도 중요하게 연구합니다.

1975년 이후 집권자들은 어떻게 반혁명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까?

반혁명을 이끈 사회민주주의 통치자들은 어쩔 수 없이 노동자들에게 많은 것을 양보해야 했습니다.

반혁명 세력이 가장 먼저 파괴한 것은 병영 내 병사 평의회로, 1975년 11월 25일에 군대 내 이중 권력을 해체했습니다. 그 후 1978년과 1979년에는 노동자 평의회를 제거했습니다. 그 후 1982년에는 토지 개혁을 되돌렸습니다.

마지막으로 1989년에는 노동자들의 통제하에 있던 은행을 대규모로 민영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마거릿 대처가 영국의 광원 노동자들을 파괴한 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포르투갈 지배계급이 조선소 노동자 조직을 파괴하기 위해 맹렬히 싸웠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했습니다. 조선소 노동자들의 조직은 혁명의 선봉장이었습니다.

노동계급이 기업, 국가, 노조로 구성된 신자유주의 자본주의 체제를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은 느린 과정이었습니다.

지배계급은 평조합원들과 주로 마오주의의 영향을 받은 이들이 이끄는 더 전투적인 좌파 노동조합을 파괴해야 했습니다.

의대 증원 규모 축소하는 윤석열 정부

전공의 등 의료 노동자들이야말로 진정한 의료 개혁을 추진할 수 있다

장호중 의사, <노동자 연대> 기자

윤석열 정부가 의대 증원 규모를 절반가량 축소하겠다고 사실상 한 발 물러섰다. 국립대 총장들의 '자발적' 제안에 사립대들도 호응하면 증원 규모는 1000명으로 줄어든 듯하다.

그러나 전공의들이 여기서 멈출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

노동자 등 서민층 처지에서 보면 답답한 노릇이다. 지난 두 달 동안 대학병원 기능이 절반쯤 마비돼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불안에 시달렸다.

정부는 전공의들을 설득하지도, 그들의 공백을 대체하지도 못했다. 그러다가 선거가 끝나자 증원 규모를 반토막으로 줄인 것이다. 의사들의 선거 결과 해석도 아전인수에 불과하지만, 정부의 후퇴는 의대 증원이 '총선용' 정책이었음을 스스로 보여 준 셈이다.

의대 증원 지지 여론은 압도적이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시장화된 의료 체계하에서 과연 의대 증원만으로 필수 의료·지역의료 공백을 해결할 수 있을지에 의문을 갖고 있다.

의사협회는 시장화된 의료 체계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의대 증원이 아무 효과가 없을 것이고 의사들의 경쟁만 격화시킬 것이라고 본다.

이에 맞서 좌파는 의대 증원만으로는 부족하고 필수 의료·지역의료 공백을 해결하려면 시장 논리를 거슬러 공공 의료에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주당은 어부지리를 취하려 해 왔다. 그리고 기껏해야 의료 공공성을 강화한다며 실효성도 없는 꾀죄죄한 법률 두어 개를 내놓고는 할 일 다 했다는 식이다 '현실론'을 펴며 오히려 증원 규모를 줄이라고도 했다.

윤석열 정부는 두 달이 지나도록 필수 의료·지역의료 공백에 대한 물음에 아무 답변도 내놓지 않았다. 시장 논리를 금과옥조로 여기기 때문이다. 새로 만든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에도 자본가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제약바이오협회장 노연홍을 내정했다.

총선 참패와 그 뒤 이어진 행보로 정부 지지가 크게 약화된 상황에서 명분마저 취약해져 이제 슬그머니 물러서고 있는 것이다.



노동자 의사들의 노동계급적 의식과 독립적 조직이 필요하다 이번에 전공의들이 보여 준 병원을 멈출 수 있는 힘은 제대로 된 대안을 향해야 한다

윤석열이 추진하는 것이든, 민주당이 제안한 것이든 '사회적 대화'는 의대 증원 규모를 절충하는 데 그칠 뿐, 의료 체계 개선책을 내놓지 않을 것이다.

일부 노동조합 지도자들이 여기에 기대를 걸고 참여하는 것은 훨씬 광범한 노동자들에게 실망만 안겨 줄 가능성이 크다.

계급적 관점

이제 의대 증원이 철회되는 것을 지켜보거나, 지금 같은 의료 공백 상황을 기약 없이 견디는 것 말고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일까?

이 문제가 처음 불거졌을 때부터 정부에 의미 있는 조치(나 양보)를 끌어낼 수 있는 힘을 보여 준 세력은 사실 전공의들뿐이었다. 비록 그 핵심 요구가 잘못된 것이었지만 말이다.

더 일반적으로 간호사를 포함한 병원 노동자들은 오랫동안 인력 충원, 의료 공공성 확대, 공공의료 강화 등 진정한 의료 개혁을 요구해 온 역사가 있다.

반면, 윤석열 정부는 물론이고 민주당의 방침(과 집권 시절 정책)을 보면 위로부터의 개혁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현실적 대안은 전공의들이 투쟁의 핵심 요구를 바꾸는 것이다. 그들이 다른 보건의료 노동자들과 함께 병원과 정부의 시장 논리에 맞서 의료 개혁을 위해 싸운다면 진정한 개혁이 가능할 것이다.

최근 박단 전공의협회 대표가 SNS에 올린 메시지는 의미심장하다.

“수련병원 교수들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착취의 사슬에서 중간관리자 역할을 해 왔다 ... 문제의 당사자인 병원들은 의-정 갈등의 무고한 피해자 행세를 하며 그 부담을 다른 보건의료 노동자들에게 고스란히 전가하고 있다. ... 의료 체계의 상업화, 시장화를 방치해 온 국가의 책임이 지대하다.”

이런 계급적 인식은 더 철저해져야 한다.

그의 말대로 병원 측은 자본가로서, 전공의와 다른 보건의료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것이 이득이다. 심지어 병원 협회는 이 와중에 전공의들의 원성이 자자한 보건복지부 차관 박민수에게 총회 축사를 부탁했을 정도다.

대학병원 교수들은 대개 중간관리자로서, 병원 측과 이해관계를 일부 공유한다. 전공의를 포함해 병원 노동자들을 효과적으로 쥐어짜고 진료의 수익성을 높이는 데 열중하는 이유다.

의협이 주로 대변하는 개원의들은 대개 중소 자영업자로서 한편으로는 대규모 자본에, 다른 한편에서는 노동자들의 압력 사이에 끼인 중간계급이다. 그들은 '공정한' 시장 질서를 부르짖으며 양극화에 저항한다. 하지만 자본의 집중과 집적, 그 경쟁에서의 낙오와 승자 독식이야말로 시장 논리의 핵심이므로 이러한 항의는 모순되고 부질없는 외침에 그치고 만다.

마지막으로, 병원의 대형화와 함께 점차 늘어나고 있는 노동자 의사들이 있다. 전공의도 그 일부이고, 전임의나 입원 전담의, 그밖에 중소 병·의원에 고용돼 일하는 봉직의가 있다. 이들의 수는 전체 의사의 절반을 넘지만, 정작 이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독립적 조직은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노동자 의사들의 단결과 독립적 대안이다. 소수로 흩어져 있는 봉직의들과 달리 전공의들은 현재 대학병원에 집단으로 고용돼 있다는 점에서 그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고 지금도 (그 요구가 잘못됐어도) 이미 그렇다.

대안적 요구들

전공의들은 의협 등과는 독립적으로 사용자인 병원 측과 정부에 먼저 조건 개선을 요구해야 한다. 병원 노동자들의 조건 개선은 의료의 질 향상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고, 그런 요구는 훨씬 광범한 노동계급사람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

당장 전공의협의회가 제시한 7대 요구만 봐도 그중 5가지는 지지할 만하다: 의사 인력 수급 추계 논의를 위한 기구 설치, 수련 병원의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노동시간 단축, 부당한 탄압 중단, 업무개시명령 폐지 등.

이 점에서 보건의료노조 지도부가 파업권 제한을 암시하는 입장을 내놓는 것은 우려스럽다. 환자들의 피해를

▶ 11면으로 이어짐

2023년 10월 국회에서 만난 윤석열과 이재명

윤석열과 이재명

여야 영수회담

윤석열의 위기 탈출용
시간 벌기에 응해 주는 이재명

김문성

윤석열이 4월 19일 오후 이재명 민주당 대표(이하 직책 생략)에게 전화를 걸어 “용산에서 만나 국정을 논의하자”고 했다. 이재명은 감사하다며 즉각 응했다.

윤석열은 총선 패배 뒤, ‘국정 방향은 옳았는데, 국민에게 전달이 잘 안됐다’며 대중의 변화 염원을 정면으로 무시했다. 또한 이재명이 요구한 생필품 물가 인상에 대한 긴급 보조금 성격의 전 국민 25만 원 지원 방안을 “전체주의”라고 격하게 반대했다.

이러한 반성 부재 때문에 총선 일주일 만에 여러 여론조사에서 윤석열의 지지도는 20퍼센트대로 추락했다.

그러자 이재명에게 영수회담을 제안한 것이다. 정치적 위기가 더욱 악화되는 상황에서 일단 시간을 벌어 보려는 책략을 부리는 것이다.

윤석열의 진짜 속내는 22일 대통령 비서실장에 정진석을 임명한 데서 드러난다.

정진석은 윤석열을 국민의힘에 입당시킨 원조 윤핵관으로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의 일등 공신이다.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던 지난해 1월 그는 이재명이 영수회담을 요구하자 “대통령이 범죄 피의자와 면담할 때가 아니다”라고 앞장서 반대했던 자다.

세월호와 이태원 유가족에 대못을

박는 막말로도 유명한 정진석은 전두환 정권 시절 내무부 장관을 지낸 아버지의 지역구(충남 공주)를 대물림해 5선까지 했는데, 이번 선거에서 낙선했다.

그런 자가 금세 정권 실세로 돌아온 것은 권력 누수를 막겠다는 것으로, 윤석열의 국정 운영 방향은 안 봐도 비디오다. 국회에서의 국민연금 개악 프로세스가 본격화하기 시작했고, 윤석열은 검찰을 관리할 법률수석을 신설하려고 한다.

정진석을 비서실장으로 임명한 직후, 대통령실은 영수회담을 위한 사전 실무 협의를 파투냈다. 민주당이 전 국민 25만 원 지급, 채수근 상병 사망 관련 의혹이나 김건희 특검 등을 회담 의제로 올리려는 것을 거부한 것이다.

윤석열의 영수회담 제안이 ‘쇼통’ 책략에 불과함을 또다시 보여 준다.

어이없게도 민주노총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라도 야당 대표를 만나 협치를 논의하는 것은 비록 그 의중이 무엇이든 환영할 일”이라고 논평했다. 민주노총의 메이데이 핵심 슬로건인 “윤석열 정권 퇴진”을 무색하게 만드는 논평이다.

대정부 투쟁

윤석열의 속내를 모를 리 없는 이재명이 “정치를 복원해야 할 때”라며 곧바로 영수회담에 응한 것은, 국정

운영에 책임감 있는 정치인임을 지배계급에게 보여 주며 차기 대선을 향한 입지를 강화해 보려는 계산인 듯하다. 총선에서 “3년도 길다”며 윤석열 탄핵을 강하게 시사했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윤석열에게 “나도 만나달라”고 요청했다.

누군가는 이를 두고 불가피한 ‘전술’이라고 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상대방이 아니라 자기 지지자들을 헛갈리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은 전술이 아니다.

이번 선거에서 변화 염원 대중이 민주당에게 의석을 준 것은 차선/차악을 택해서라도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고 싶기 때문이다. 사실상 국회 탄핵 추진을 공약한 조국혁신당의 약진이나 윤석열이 총선 민의를 거스르려고 하자 지지율이 폭락한 것이 그 방증이다.

따라서 이재명이 영수회담 제안에 응한 것은 자신이 총선에서 “국민을 무시하는 권력은 오래갈 수 없다.” “책임을 묻고, 말로 해서 안 되면 내 쫓아야 한다” 등 윤석열 탄핵까지 암시하며 지지자들에게 대정부 투쟁을 약속한 것을 쉽게 뒤집는 것이다.

한편 윤희숙 진보당 대표는 22일 “반노동 정책 폐기 없이 ... 야당과의 협치도 어렵다”며 “양회동 열사에 대한 사과는 ... 정부의 쇄신 의지를 가늠하는 기준점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의 영수회담 응낙을 사실상 측면 지원한 것이다.

다시 핵오염수
방류하는 일본,
민주당은
이번엔 뭐하나?

4월 19일부터 일본은 도쿄전력 핵오염수의 2차년도 방류를 시작했다.

최근 발표에 따르면, 1차년도인 지난해 네 차례 방류된 핵오염수는 2만 톤이 채 안 된다. 아직도 130만 톤이 남아 있다. 일본의 핵오염수 방류 규모는 갈수록 더 커질 것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1년 전과 달리 별 움직임이 없다.

지난해 이재명 대표는 일본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한미일 안보 동맹 강화를 동시에 규탄하며 당원과 지지자들을 동원해 도심 대중 집회들을 열었다. 진보당계도 함께했다.

그런데 핵오염수 방류가 다시 시작된 날, 민주당은 영수회담에 합의하면서 이에 대한 항의는 소규모 기자회견에 그쳤다.

총선 승리로 이재명과 민주당의 공식정치 내 위상이 오르고 대권에 유리한 듯한 상황이 되자 한일 관계를 악화시키지 않으려는 듯하다.

이런 일을 보면, 국민연금 개악에 민주당이 협력할 가능성도 경계해야 한다.

▶ 10면에서 이어짐

걱정하는 데에서 더 나아가 “생명,” “죽음,” “집단 이기주의” 운운하며 비판하는 것은 장차 다른 (병원) 노동자들이 투쟁할 때 부메랑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전공의들의 요구 중 의대 증원 백지화와 의료 사고 면책은 반동적이다. 게다가 나머지 노동계급의 이익과 대립된다.

전공의들이 걱정하는 의료 사고는 또한 인력이 충분히 늘면 많은 경우 예

방할 수 있다.

자본주의 사회는 시간이 갈수록 한 편으로는 극소수 자본가로, 대부분은 노동자로, 다른 일부는 그 사이에 끼인 집단들로 분화된다. 이런 분화는 단지 직종의 세분화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서로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계급 집단으로 나뉘는 것이다.

이러한 계급 분화에서 한국의 의사 집단도 예외가 아니다.

의사들은 갈수록 자신의 노동에 대

한 통제력이 약화되는 현실(마르크스가 ‘소외’라고 부름)에 분통을 터뜨리지 만, 해결책과 완화책은 계급에 따라 서로 다를 수밖에 없다.

시장 의료하에서 성공한 자본가가 되고자 하는 의사는 기성 의료 체계의 본질을 지키는 게 자신에게 이익임을 점점 확신하게 된다.

노동계급의 일부인 의사는 냉혹한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의료 같은 필수 서비스만큼은 차별 없이 제공돼야 하

고, 노동자 의사 수가 늘어나는 것을 걱정하기는커녕 (계급의 잠재력 증대로서) 반겨야 한다는 것을 계급적 투쟁을 통해 깨달아 나아갈 것이다.

자신들의 처지를 개선하면서도 의료의 질을 높일 수 있다면 점점 더 많은 의사들이 의대 증원을 요구하거나 반기게 될 수 있다.

너무 늦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다음 번에는 그런 전망을 가진 전공의들이 나서서 투쟁의 요구를 바꾸길 바란다.

브릭스는 반제국주의 국가군(群)이 아니다

김승주

좌파 다수는 미국 등 서방의 제국주의에 반대하면서 진영논리를 내세워, 중국·러시아가 주도하는 남반구 개발도상국 연합에 기대를 걸라고 권한다.

중국 사회를 진보적이라고 보는 스탈린주의자들이 특히 그렇다. 그들은 브릭스(BRICS)가 바로 그런 구상의 구현물이라고 주장한다.

브릭스는 “제국주의 패권 질서의 ‘대립물’”이다.(<민플러스> 2019년 12월 16일 자, ‘국제관계 민주화와 지구화로 가는 다극화’)

스탈린주의자들은 세계 인구와 신흥 경제의 많은 부분을 포괄하게 된 브릭스가 미국의 경제적 패권(달러 패권)과 그에 기초한 금융적 약탈,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종식시키고, “상호존중과 협력에 기반한 국제관계”(2023 반미자주대회 결의문)를 만들어 낼 것이라고 주장한다.

브릭스 국가들이 “[미국 주도의] 낡은 국제질서와 국제 분업으로부터 불공정한 대우와 억압”을 받아 왔고, 따라서 “자의든 타의든 간에 ... 미국과 서구 금융자본의 견제와 봉쇄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자기 발전의 길을 갈 수 있[으려면] ... 국제질서의 민주화, 독점과 패권을 부정하는 평등과 호혜원칙을 강하게 답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브릭스는 최근에 브릭스 ‘플러스’가 되면서 다시 주목을 받았다. 기존의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더해, 중동과 아프리카의 주요국인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에티오피아, 이집트, 아랍에미리트를 새 회원국으로 맞이했다.

제국주의를 미국 패권으로 축소하기

그러나 스탈린주의자들은 오늘날의 제국주의를 서방, 특히 미국의 패권으로 환원한다. 이런 환원론은 미국과 경쟁·갈등하는 또 다른 강대국인 중국과 러시아를 반제국주의 운동의 일원으로 여기게 만든다.

과연 브릭스의 부상은 제국주의를 약화시킬까? 우선, 무엇을 제국주의로 볼 것인지부터 살펴봐야 한다.

스탈린주의자들은 제국주의를 자본주의 체제 자체의 산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자본주의 모델, 특히 ‘약탈



2016년 중국에서 열린 브릭스 정상회의 시진핑은 브릭스에 ‘진보적 다극화’ 포장지를 씌운다

적·기생적인 금융 자본’과 결부시킨다.

그리고 제국주의는 그들에게 특정 패권 국가를 가리키는데, 자국 산업 자본의 내생적 발전이 멈춰 버린 강대국이 금융 자본과 군사력을 앞세워 약소국을 약탈하고, 그럼으로써 막대한 초과 이익을 얻으려 한다는 것이다. (‘지대 추구 금융 경제’)

그러나 약탈하는 서방 강대국 vs. 그에 종속된 나머지 약소국 구도로 세계 질서를 이해하는 것은 어떻게 브릭스 신흥국들이 그 ‘약탈적인’ 미국 주도 질서에 편입되면서 자본 축적과 경제 발전을 이룰 수 있었는지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

제3세계 지배자들도 미국 주도의 신자유주의 질서인 ‘워싱턴 컨센서스’를 받아들였다.

1980년대 이후 중국 등 제3세계 국가들이 자국 시장을 개방하고 신자유주의를 받아들인 것은 단지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의 음모와 협박에 굴복했기 때문은 아니었다.

그것이 자국 경제 성장(즉, 자본 축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이다. 이 지배자들은 서방 은행들로부터 대규모 차입을 통해 개발 자금을 조달하고, 거대 다국적 기업들과의 협상을 통해 기술을 개발하며, 더 넓은 시장을 개척하려고 했다. 해외 자본과 협력해 생산성이 떨어지는 자국 산업을 혁신하고 자국 개발의 지렛대로 이용한 것이다.

물론 모든 개발도상국이 이 과정에서 성공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중국은 특별히 성공한 케이스다. 중국은 미국 경

제와 긴밀히 연결되며 성장했고, 그 과정은 미국에게도 득이 됐고, 중국도 커다란 이익을 거뒀다. 2010년대 이후 중국이 미국의 실질적 경쟁자로 부상함에 따라 미중 관계는 모순과 갈등이 점점 더 커졌지만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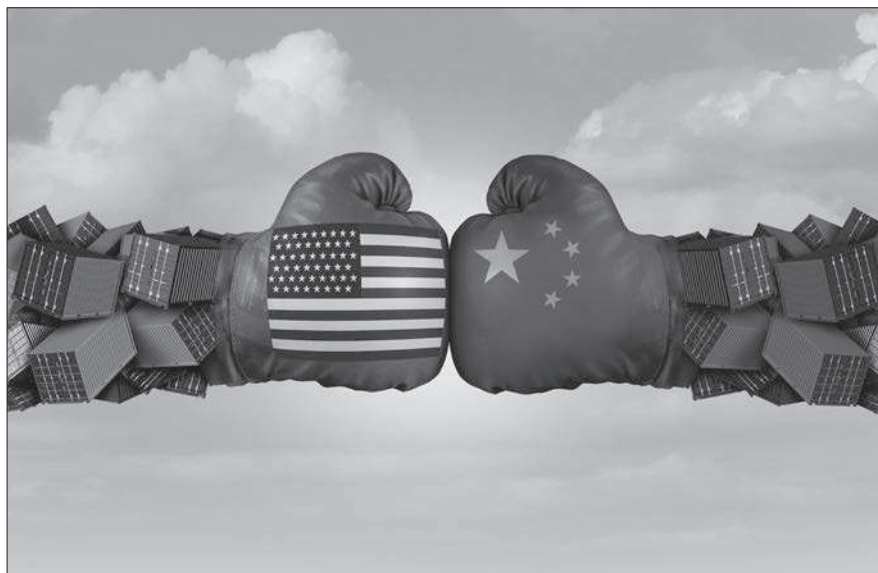
미국은 기생적인 경제인 반면, 중국은 제조업에 기초한 내생적, 안정적인 모델이라는 것도 일면적이고 과장된 주장이다.

미국은 최첨단 기술, IT 산업 분야에서 여전히 세계경제를 선도하고 있다. 그리고 금융 문제에서 중국도 만만찮은 부채 의존 경제다. 이 때문에 그림자 금융, 주택 시장 거품 등 심각한 금융 불안정 문제를 겪고 있다.

한편, 2008년 미국 월스트리트발 금융 공황 때 중국 정부가 미국과 협력해 금융 위기를 진정시키고 초대형 경기부양책을 펼 것은 중국 경제뿐 아니라 세계 경제를 회복시키는 데 일정한 구실을 했다. 이 강대국들은 자본주의·제국주의 체제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면서도 그러한 경쟁의 토대인 세계 질서를 공유하기도 하는 “서로 싸우는 형제들”인 것이다.

제국주의를 단지 강대국의 약소국 약탈로 협애하게 보면, 경제적 경쟁에 따른 강대국들 경제력의 상대적 변화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할 뿐 아니라, 그런 변화가 낳는 지정학적 경쟁 격화의 위험성을 과소평가할 수 있다.

제국주의를 강대국 간 경쟁 체제로



미중 갈등의 심화는 ‘패권 대 반패권’ 아닌 제국주의 강대국 간의 경쟁



2018년 남아공에서 열린 브릭스 정상회의 반대 시위

이해해야만, 중국과 러시아가 부상하고 세계 질서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재편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제국주의의 악화가 아니라 오히려 제국주의적 경쟁과 불안정, 위협의 증대로 이어진다는 것을 제대로 인식할 수 있다.

레닌의 제국주의론은 세계 자본주의 체제의 이러한 “불균등 발전”이 드러내는 역학이 바로 제국주의로 나타남을 보여 준다.

이런 제국주의론에 따르면, 브릭스의 부상은 제국주의 세계 질서의 변화를 보여 주고 또 그 변화를 촉진할 수 있지만, 그것 자체가 제국주의 체제의 대립물은 될 수 없는 것이다.

개도국 간의 단결?

‘약탈당하는’ 중국과 제3세계 국가들 간의 협력이 서방 강대국들에 대항하는 ‘반패권’이라는 대의 아래 민주적이고 호혜적으로 발전한다는 주장도 현실과 다르다.

스탈린주의의 주장들은 브릭스 국가들 사이의 균열과 갈등을 애써 축소시키는 경향이 있다. 가령 인도와 중국이 국경 분쟁과 지역 정치를 둘러싸고 갈등을 벌이지만 미국 주도 질서에 맞서는 공통의 이익이 있고, 그에 비하면 둘 사이의 갈등은 부차적이라고 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리 단순하지 않다. 예컨대, 인도는 미국이 중국을 포위하기 위해 형성한 쿼드와 인도-태평양경

제프레임워크에 참여하고 있다. 브라질도 2019년 미국에게 군사 장비에 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비 나토 주요 동맹” 지위를 얻었다.

물론 브릭스 국가들은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를 놓고 러시아를 비난하는 데 동참하기를 거부했다. 미국이 러시아를 제재해 러시아의 외환 보유고를 동결한 것에 대응해, 달러를 대체할 통화를 만들고자 하는 등 미국의 뜻을 거스르는 선택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강대국들 간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자신들의 운신의 폭을 넓히려는 시도이지, 단순히 미국 등 서방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또, 미국과 달리 중국은 제조업에 기반한 경제 성장을 이룩해 내생적이고 안정적인 발전이 가능하므로 패권 국가의 길을 추구할 필요가 없고, 다른 제3세계 국가들의 균형 발전을 도울 수 있다는 스탈린주의자들의 주장도 현실과 맞지 않다.

중국이 라틴아메리카, 중동, 아프리카 등지에 진출해 현지 경제와 맺는 관계는 서방이 개발도상국 무역에서 추구하던 것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온 지는 이미 오래됐다. 즉, 1차 생산물을 수입해 가고 공산품을 수출하면서 개발도상국을 글로벌 공급 사슬의 밑바닥에 묶어 두는 패턴을 되풀이할 뿐, 현지의 균형 발전과는 상관이 없다는 점이다.

개발 차관을 앞세워 진출하는 방식도

서방 강대국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중국은 ‘일대일로’를 통해 개발도상국들에 막대한 대출을 제공하면서 영향력을 늘리고 있는데, 그 돈은 주로 현지에서 중국 업체를 이용하고 중국 자재를 조달하는 데에 지출된다.

또, 중국의 해외 차관에는 흔히 가혹한 채무불이행 보상 조건이 달려 있다. 예컨대 중국은 스리랑카가 빚을 갚지 못하자 그 대가로 스리랑카 연해 전략 도시인 함반토타의 항구 등 전략 시설을 장악할 수 있었다.

위로부터?

진영논리는 미국과 대립하는 국가(의 지배계급)와 좌파가 연대해야 함을 함축한다. 이는 그 나라 노동계급이 자국 지배계급에 맞서 저항할 때 좌파가 그것을 외면하게 만드는 치명적인 정치적 약점으로 이어질 수 있다.

브릭스 국가들은 모두 저마다의 자본주의적 이해관계를 위해 이합집산하는데, 자본주의적 성장(축적)의 논리는 필연적으로 노동계급의 착취와 억압을 동반할 수밖에 없다. 이에 맞선 저항이 벌어진다면 누구의 편에 설 것인가.

이미 중국이 일대일로 사업을 추진하고 군사력 진출을 시도하는 지역들에서 현지 반발이 커지고 있다. 가령 앞서 언급한 스리랑카 함반토타 항구를 중국이 장악하자 현지 주민들은 대규모 항의 시위를 벌였다. 시위대는 “중국이 함반

자본주의·제국주의
국가 간 갈등, 협력, 책략에서
해결책을 찾으려 하면
아래로부터의
국제주의적 연대와 저항을
소극적으로 대하거나
일축하게 된다

토타를 식민지 삼으려 한다”고 규탄했다.

2023년 8월에는 남아공에서 브릭스 정상회의가 열리자 자국 정부와 브릭스 정상들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당시 시위자 중 한 명이자 소웨토 지역 활동가인 트레버 응파네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범죄에 대해서 얘기하는 브릭스 지도자들도 또한 자국민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있다는 것을 전 세계에 알리려고 시위에 나섰습니다.”

브릭스를 서방 제국주의의 대안으로 보는 관점은 제국주의 반대 투쟁에서 노동계급의 국제적 연대와 저항이 아니라 국가 간 관계를 주목하는 위로부터의 관점이다.

자본주의 체제가 존속하는 한은 제국주의 체제를 평화롭게 개혁하는 것은 공상이다. 자본주의 세계 질서에서 국가 간 이합집산은 언제나 있어 왔고, 이것은 이 체제의 일부일 뿐이다.

제국주의를 약화시키고 나아가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자본주의가 낳는 국가 간 경쟁 체제 자체에 도전할 수 있는 국제 노동계급의 투쟁과 연대에서 나온다.

이스라엘의 억압에 반대해 국제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미국, 영국 등 서방 강대국의 노동계급 사람들과, 중국 등 브릭스 소속 국가들의 노동계급은 제국주의 질서와 (그 하위 질서인) 시온주의에 반대하는 투쟁 속에서 연대할 수 있다. 그리고 연대해야 한다.

스탈린주의는 국가 간 갈등과 협력과 책략이 해결책이라고 보므로 이런 아래로부터의 국제주의적 연대와 저항을 소극적으로 대하거나 일축하는 경향이 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위기

— 주요 자본주의 정부 경제정책 실패의 일부

정선영

올 초만 해도 올해에는 물가가 하락하고 미국 연방준비제도를 비롯한 각국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지난해 여러 차례 금리를 올렸으니 올해에는 미국 경제의 성장세도 둔화되고, 물가가 떨어질 것이라고 기대한 것이다.

그러나 지난 몇 달간 미국뿐 아니라 한국도 물가 상승률이 떨어지기는커녕 오히려 소폭 반등했다. 올해 6월에 미국 연준이 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이라는 기대가 많았지만, 그런 기대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현재 미국 경제 성장률은 예상보다 높은 상황이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미국 성장률을 2.1퍼센트에서 2.7퍼센트로 0.6퍼센트포인트 올렸다.

미국 바이든 정부가 자국 산업 경쟁력을 높이려고 개입을 강화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바이든 정부는 중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반도체, 전기차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 기업들에게 막대한 보조금을 주고 있다. 그런 지원을 받는 기업 부문의 투자가 늘어 경제 성장에 플러스 효과를 냈다. 여기에 석유와 가스 수출이 증가한 것도 미국 성장률을 끌어올린 요인이었다.

이 때문에 미국 경제의 상태를 낙관



공공요금 인상하며 물가 상승 부추기는 정부. 2023년 3월 25일 윤석열 심판 민중행동의 날

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그러나 미국 기업들의 이윤율은 낮고, 이 때문에 정부 지원을 받지 않는 부문의 투자율은 낮다. 고금리 속에 좀비 기업들의 파산이 늘고 있고, 올해 1분기 사무실 공실률은 20퍼센트로 역대 최대 수치다. 상업용 부동산 위기가 금융 위기를 촉발할 가능성도 존재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세계 다른 나라들이 경기 침체를 면치 못하는 상황에서 미국 경제의 상대적 호조는 세계적인 강달러 추세로 이어지고 있다.

그 결과 한국은 고물가, 고금리에 더해 고환율까지 겪고 있다.

한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22년 5.1퍼센트, 2023년 3.6퍼센트를 기록한 데 이어, 여전히 3퍼센트가 넘는 상승세가 유지되고 있다. 올해는 2퍼센트대로 낮아질 것이라던 예상은 빗나가고 있다.

물가가 치솟은 2022년에는 세계적인 공급 차질,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중간재와 석유·가스 등 에너지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이다. 지난해에 계속된 “끈적한 인플레이션”은 정부와 기업들이 원가 상승 비용을 소비자들에게 떠넘기며 물가를 올려 왔기 때문이다.

지난해 물가 상승에서 큰 몫을 차지한 것은 공공요금 인상이다. 정부가 전

기, 가스, 지하철 같은 부문에 지원을 늘리지 않고 평범한 사람들에게 비용 상승 부담을 떠넘겼다.

상품 가격을 인상할 힘이 있는 대기업들도 소비자들에게 비용을 떠넘겨 왔다. 최근 총선이 끝나자마자 여러 기업이 또다시 가격 인상을 발표하고 있다. 평범한 사람들은 식료품 가격 상승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는데도 농심, 삼양, CJ 등 대기업들은 식료품 판매로 막대한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다.

여기에 기후 위기, 전쟁 같은 자본주의 체제의 복합 위기가 물가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지난 몇 달간 과일 가격이 전년보다 40퍼센트 오르고, 야채 가격은 10퍼센트 이상 오른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이상 기후였다. 최근 중동 전쟁이 확산될 위험이 커지자 유가도 요동치고 있다.

여기에 세계적인 강달러로 환율까지 치솟으니 앞으로 물가가 더 오를 것이라는 우려가 큰 것이다.

계속되는 고금리는 많은 사람들을 빚더미에 짓눌리게 할 뿐 아니라 금융 위기 가능성도 키우고 있다. 부동산 PF 부실이 금융권 위기로 전이될 가능성도 상당하다. 지난해 말 부동산 PF 연체액 기준 상위 10개 저축은행의 평균 연체율은 9.23퍼센트로, 2022년보다 무려 7.11퍼센트포인트 상승했다.

이런 상황은 금리를 올려 물가를 잡는다는 신자유주의적 정책이 완전히 실패

독자·지지자들의 구독료와 후원으로 발행하는 좌파 주간 신문

노동자연대 정기구독/후원하세요

정기구독료: 연 50,000원

입금 계좌 (예금주 ㈜ 레프트미디어)
국민은행 020601-04-080896, 농협 301-0010-1643-71

※ 웹사이트에서 신용카드·핸드폰 결제 가능



ws.or.kr/subs2

구독 문의: 02-777-2792, wspaper@ws.or.kr



ws.or.kr/online

온라인에서
만나 보세요

새 기사가 계속 업데이트됩니다

“노동자 연대” 검색

스마트폰 앱으로 만나 보세요

“노동자 연대” 검색 텔레그램 “노동자 연대 알리미”



아침에 읽는 <노동자 연대>

매일 아침 7시 30분 이메일로 기사를 배송해 드립니다.
<노동자 연대>와 함께 힘차게 하루를 시작하세요!



발행인: 김인식 편집인: 김인식 사업자 명칭: (주)레프트미디어 제호: 노동자 연대
발행연월일(창간호): 2009년 3월 14일 인쇄인: (주)디얼코리아 현재호: 서울08179
(주간) 등록연월일: 2009년 1월 12일 주소: 서울시 성동구 하왕십리동 946-16 4층
전화: 02-777-2792 제보: 02-777-2791 팩스: 02-6499-2791 email: wspaper@ws.or.kr

ISSN 2005-8217



youtube.com/c/노동자연대TV

마르크스주의 관점으로
당신의 눈을 여는 채널

노동자연대 TV

☆ 구독
♡ 좋아요
🔔 알림 설정



- ▶ 다양한 주제의 토포론회 영상
- ▶ 주요 시사 이슈 팩트부터 논쟁점까지
- ▶ 600여 개 콘텐츠 체계적 분류
- ▶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를 저장, 역사, 전망
- ▶ 현대 중국의 모든 것 12강
- ▶ 기후 위기! 체제를 바꾸자 10부작

지금 구독하세요! 온라인 토포론회 등 이벤트 일정과 새 콘텐츠 소식을 보내 드립니다.



위기의 자본주의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적 대안을 제안하는

노동자연대 가입하세요

문의: 02-2271-2395

ws.or.kr/join



ws.or.kr/what-we-stand-for

기본입장



성공적이었던 삼성전자 노동자들의 첫 단체행동 총선 결과 활용해 자신 있게 투쟁에 나서다

했음을 보여 준다. 이 정책은 계속 되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이라는 총체적 위기를 불러왔을 뿐이다.

경기 침체 위험이 커지자 정부와 기업들은 고통을 노동자 등 서민층에게 떠넘기려 한다. 총선이 끝나 자마자 재정 건전성을 들먹이며 긴축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주류 언론들이 쏟아 내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PF 시장을 위해 85조 원의 금융 지원책을 신속히 쓰겠다고 하면서도, 민생을 위해 1인당 25만 원씩 지원하자는 민주당의 안에는 극구 반대하고 있다. 우파들은 이런 지원이 물가를 올릴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기업들에는 감세와 막대한 지원을 하니 명백한 이중잣대다.

민주노총은 1인당 25만 원 민생지원금 지지해야

최근 민주노총은 1인당 25만 원 지원을 “초유의 고물가 시대에 그 후과를 고려치 않는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반대했다. 그러나 이는 옳지 않은 입장이다.

몇 년간 평범한 사람들의 실질 소득이 감소했는데도 물가가 오른 것에서 보듯, 소득 증대가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보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민주노총은 민생지원금 대신 최저임금 인상, 공공요금 인하 등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계급 투쟁의 관점에서 본다면 민생지원금과 다른 과제들은 대치될 요구들이 아니다. 민주노총은 총선 전에 각 당에 복지 확대를 요구하기도 했었다.

노동계급의 생계비 위기가 심각한 상황에서 노동자 등 서민층의 삶을 지키려면 재정 건전성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임금 인상을 포함해 다수 대중의 소득을 올릴 방안을 우선하며 기업과 부자들이 그 비용을 대라고 요구해야 한다.

삼성전자 노동자들이 1969년 창사 이래 처음으로 단체행동에 나섰다.

4월 17일 삼성전자 내 최대 노조인 전국삼성전자노조(4월 22일 기준 조합원 2만 7504명) 조합원 2000여 명은 점심시간을 이용해 경기도 화성시 삼성전자 반도체 부품연구동 앞에서 집회를 열고, 노동자와 노동조합을 무시하는 사측을 규탄했다.

노동자들은 노조와의 교섭을 통한 임금 결정, 성과급 제도 개선, 유급휴가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

전국삼성전자노조는 2019년 11월에 설립됐다. 그런데 사측은 줄곧 노조를 무시하고 노사협의회에서 임금을 결정해 왔다.

올해에도 노조와 임금 교섭을 하던 3월 29일, 사측은 노사협의회를 통해 임금 인상률(5.1퍼센트)을 공지했다. 노사협의회 발표 이후 이에 대해 노동자들에게 별도 동의 절차도 밟지 않았다.

이에 분노한 삼성전자노조원 300여 명은 노사협의회 결정 철회를 촉구하기 위해 4월 1일 화성시 부품연구동 로비에 모였고, 노조 대표자들과 사측 대표와의 면담을 요구했다. 그러나 사측은 노조 대표자들을 막아 세우고 밀쳐 일부 노동자가 다치기도 했다.

2020년에 삼성 총수 이재용은 삼성 그룹의 노조 파괴 공작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무노조 경영 폐기를 선언했다. 그러나 무노조 경영 폐기는 말뿐이고 교섭권 등을 인정하지 않는 등 노조를 무시하는 행태를 일삼고 있다.

여기에 지난해 반도체 부문 적자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는 것도 노동자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

지난해 세계 반도체 시장의 부진 때문에 삼성전자는 반도체 부문에서 15조 원 적자를 기록했다. 사측은 이를 이유로 노동자들의 초과이익성과급을 전액 삭감했다. 그러나 삼성전자 임원들의 퇴직금은 넉넉하게 챙겨 주고, 보수한도(등기이사에게 지급할 보수의 상한액)도 17퍼센트나 인상했다.

삼성전자노조의 첫 단체행동은 사측의 노조 무시와 고통 전가에 따른 불만이 표출된 것이다. 지난해 12월에 1만여 명이던 조합원 수는 올해 들어서만 1만 7500여 명이나 늘었다. 4월 5일에 끝난 쟁의행위 찬반 투표에서 전체 조



삼성전자 노동자들이 4월 17일 화성시 부품연구동 앞에서 창사 이래 첫 단체행동을 벌이고 있다

합원 대비 86.3퍼센트의 압도적인 찬성률로 쟁의행위를 가결시켰다.

애초 집회는 부품연구동 1층 로비에서 진행될 예정이었다. 그런데 사측은 단체행동을 위축시키려고 바리케이드를 동원해 부품연구동 출입을 제한하고 1층 로비에 꽃밭을 조성했다.

사측의 치졸한 방해에도 4월 17일 집회에는 노조 집행부 예상보다 갑절이 넘는 조합원이 참가했다. 평택공장에서도 오거나, 밤샘 근무 후 참여하거나, 연차를 내고 참가하는 등 노동자들은 사측에 대한 불만과 행동 염원이 상당함을 보여 줬다.

이번 총선에서 정부·여당이 참패한 것도 노동자들에게 자신감을 줬을 것이다. 첫 단체행동이 있었던 최근 일주일 사이에 약 1400명이 새롭게 노조에 가입했다. 적절한 타이밍에 벌어진 행동이 노조에 동참하게 하는 자극제가 된 것이다.

자극제

4월 17일 집회에서 노동자들은 팻말을 들고 힘차게 사측을 규탄했다. “노동존중 실현하라.” “노조탄압 중단하라.” 그간 노동자와 노조를 업신여겨 온 사측을 향한 분노의 목소리였다.

손우목 전국삼성전자노조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삼성전자 창립 이래 노조의 첫 단체행동인데 역사적인 순간을 조합원들과 함께할 수 있어 영광”이라며 “삼성전자를 노동 존중 회사로 만들기 위해 열심히 활동하겠다”고 다짐했다.

삼성전자 노동자들의 첫 단체행동은 여러 언론의 주목을 받으며 성공적으로 치러졌다. 노동자들은 집단적 행동을

통해 힘과 자신감을 얻었을 것이다.

삼성전자가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생각할 때, 삼성전자에서 노동자들이 첫 집단행동에 나선 것은 전체 노동운동에도 뜻깊은 일이고 전진이다.

삼성그룹은 첫 단체행동 당일인 4월 17일 일종의 ‘비상 경영’을 선포했다. 지난해 적자 발생을 이유로 삼성전자 임원들부터 실시한 주말 근무를 주요 계열사 임원들로 확대했다.

‘회사가 어려운데 노조는 무리한 요구를 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줘서, 노동자들을 위축시키려는 것이다.

그러나 올해 1분기 삼성전자영업이익은 6조 6000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10배가량 늘었다. 사측은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려는 것이다.

삼성전자노조는 2차 단체행동을 5월 24일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사옥 앞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앞두고 이번 주부터 전국 사업장을 돌며 조합원들에게 홍보 활동을 진행한다.

삼성전자노조가 첫 단체행동의 기세를 발판 삼아 앞으로 더욱 힘차게 싸워 나가 성과를 얻길 응원한다.

신정환

ws.or.kr

더 많은 기사를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새로운 기사들이 수시로 업데이트됩니다.

★ 이스라엘인 서울대 교수,
팔레스타인 연대 포스터 훼손

★ 한국인 무슬림 유튜버의
이슬람 사원 건립 논란
국민일보사 등 보수 개신교 측의
이슬람 혐오



탄압에 굴하지 않고 캠퍼스 잔디밭으로 다시 돌아온 컬럼비아대학교 학생들



사진 출처: Palestinian Youth Movement

미국 대학가에서 확산되는 팔레스타인 연대 점거 운동

지난 주말 미국 컬럼비아대학교와 버너드대학의 학생·노동자들이 강도 높은 탄압에 맞서 팔레스타인 연대 시위를 이어갔다. 미국에서 수십 년 만에 손꼽히게 두드러지는 캠퍼스 행동이다.

시위대가 뉴욕 소재 명문대 컬럼비아대학교 캠퍼스 잔디밭에 천막 50동을 치고 농성을 벌이자 대학 당국은 경찰을 불렀다. 경찰은 시위대 108명을 체포했다.

경찰은 체포한 학생들을 플라스틱 끈으로 몇 시간 동안 묶어 뒀다. 대학 당국은 체포된 학생 여러 명을 대학 기숙사에서 내쫓고 학생 신분을 정지시키고 강의 수강을 금지했다.

시위 참가 학생 마르얌 이퀴발은 이렇게 말했다. “버너드대학에서 정학당하고 기숙사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봤자 팔레스타인 해방 운동을 향한 제 신념은 더 굳건해질 뿐입니다. 대(對)이스라엘 투자 철회를 위해 계속 투쟁할 것을 결의합니다.”

“팔레스타인인들에게 연대했다는 이유로 정학당하고 체포되는 것은 영예로운 일입니다.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인들이 저희에게 시위를 계속해 달라는데 뭐가 더 필요한가요?”

컬럼비아대학교 학생 신문 <컬럼비아 스펙테이터>는 경찰이 캠퍼스

에서 학생들을 대규모로 체포한 것은 1960년대 베트남 전쟁 반대 시위 이후 처음이라고 보도했다.

이 저항은 중요한 초점이 돼 다른 학생들도 행동에 나서게끔 고무했다. 컬럼비아대학교에서 고작 몇 킬로미터 떨어진 뉴스쿨대학교에서도 “가자지구 연대 농성”이 시작됐다. 4월 12일 코네티컷주 예일대학교 학생 수백 명이 시위에 돌입했고, 오하이오·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도 학생들이 저마다 농성장을 차렸다.

뉴욕주립대학교에서도 이번 주에 추가 행동이 잡혔다.

컬럼비아대학교 학생 시위대의 요구

는 세 가지다. 첫째, 학교 당국은 인종 분리주의 국가 이스라엘과의 교역에서 수익을 얻는 기업들에 대한 투자를 전면 중단하라.

둘째, 컬럼비아대학교는 금융 투자 내역을 공개하라. 셋째, “팔레스타인 해방 운동에 동참했다는 이유로 징계 받거나 해고된” 학생·노동자를 모두 사면 복권하라.

점거 시위대는 이런 구호를 외쳤다. “내역 공개하라! 투자 철회하라! 우리는 멈추지도 쉬지도 않을 것이다!” 22일 이른 아침 시위대는 “인종 학살에 대한 투자 철회” 요구를 담은 성명을 발표했다.

“우리가 위협을 무릅쓰고 있는 이유는 컬럼비아대학교가 우리 등록금과 기부금을, 죽음에서 수익을 내는 기업들에 투자하는 데에 더는 공범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부모의 유린된 시신 앞에서 울부짖는 아이들, 먹을 것이 없는 가족들, 마취 없이 수술하는 의사들을 보는 우리는 하루하루가 참담하다.

“우리 대학교가 이 폭력의 공범이기 때문에 우리는 시위를 벌인다. 우리는 강제로 끌려나갈 때까지, 혹은 컬럼비아대학교가 우리의 요구를 수용할 때까지 이곳을 지킬 것이다.” 미국 대통령 바이든의 측근들은 이 시위대가 “노골적으로 유대인 혐오적인” 입장을 냈다며 근거도 없이 비방했다.

하지만 시위 학생들 중에는 유대인도 여럿 있다. 그 중 한 명인 아이리스 시앙은 학교 당국이야말로 그녀가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게 만들었다고 했다.

최근 미국 팔레스타인 연대 시위대는 곳곳에서 주요 도로를 점거하고, 시카고 오헤어 국제공항과 시애틀 마 국제공항의 진입로를 가로막았다. 시위대는 샌프란시스코 금문교와 뉴욕 브루클린교도 점거했다.

찰리 김버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며 학교 건물 로비를 점거한 뉴스쿨대학교 학생들

사진 출처: New School Students for Justice in Palestine

출처 Charlie Kimber, 'US students spread campus occupations for Palestine' (2024. 4. 22) / 번역 김준호